이코노 & 비즈 피플

광주 온 김문겸 중소기업 호민관

"광주삼성전자 해외이전 막겠다"

협력업체 일감 줄어들지 않도록 협의

3600개 중소기업 규제 과감히 재검토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가전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정부도 문제를 파악해 해외 이전을 막는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8일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에 참석한 김문겸(55)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 호민관)은 "삼성전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물량을 해외로 옮기려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명분·실리 등 모든 것을 동원해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옴부즈만은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관련 중소기업은 일감을 잃게 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전하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은 이전보다는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 기업과 경쟁해서 성장하기는 어렵다"며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역특화 브랜드 사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옴부즈만은 지난 3월 이민화 초대 옴부즈만에 이어 제2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주로 정부기관 간 조정·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 처리와 중소기업 관련 규제 정비 등을 담당한다.

김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정부 기관의 중간에 있는 자리"라며 "중소기업과 정부 간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의 개혁·개선·정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옴부즈만은 이어 "기업 관련 규제 5500여개 중 중소기업과 관련한 규제가 3600여개로 70%가량 차지한다"며 "규제가 전부 나쁜 건 아니지만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현대 비즈니스 모델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원 해결보다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 생태계의 균형을 통한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옴부즈만이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통큰치킨'을 팔지 말라고 규제할 수는 없지만, 기업 스스로 철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영업자의 사정을 알릴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인 김 옴부즈만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이사, APEC 중소기업분과 소기업위원회 한국 대표, 숭실대 평생교육센터장·중소기업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창업·금융·벤처투자·소기업 및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등 중소기업과 관련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중소기업 전문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계 최고급 생활용품 모였다 18일 광주 신세계백화점을 찾은 고객들이 1층 시즌 이벤트홀에서 생활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세계 42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유명 생활용품 판매전 '메종 드 신세계'를 22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홀과 지하 1층 매장에서 개최한다. 〈광주 신세계 제공〉

우리금융 민영화 후폭풍

관치금융 전락 등 부정 시각 확산…産銀 인수 불투명

끊이지 않는 이슈로 몸살을 앓아온 국내 금융권이 이번에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우리금융 재매각 방안을 놓고 대형 국책은행을 만들기 위해 특정 금융기관을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관치금융(官治金融) 심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9월로 못박은 본입찰 때까지 우리금융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우리금융 재매각 방안을 감안하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곳은 산은금융지주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금융 매각의 최소입찰 규모를 30%로 종전보다 확대하면서 금융지주사의 입찰 참여 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자본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컨소시엄이나 사모펀드(PEF) 형태 등도 입찰에 참여할 길은 열려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실익을 거두기 힘들어 참여할 곳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독자 민영화를 추진해온 우리금융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금융은 기업 등의 투자자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금융 지분 56.97%를 공동 매입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을 내렸다.

특히 컨소시엄 내에 참여한 기업은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총액 비중이 25% 이상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된다. 따라서 규모가 큰 대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산업자본으로 간주된다. 즉 사실상 일정 규모를 갖춘 금융자본만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이 개정돼 금융지주의 입찰 참여가 가능해지더라도 정작 인수전에 뛰어들 후보로는 인수 의지를 밝힌 산은금융이 유일하다.

또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금융과 산은금융을 합친 대형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관치금융이 심화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메가뱅크란 두 민간은행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발휘해야 하는데 국책은행간 합병은 '관치금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합병 방안이 현실화해 자산 505조원의 메가뱅크가 탄생하면 국내에서 금융산업 재편 등의 빅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긴장하는 기색도 엿보인다. /연합뉴스

삼성생명 임순이 명예 사업부장보 위촉

보험료만 매월 7억원…8년연속 '보험 명인'

삼성생명 임순이 FC(Financial Consultant, 재무설계사)가 최근 동구 금남로 5가 삼성생명빌딩에서 열린 삼성생명 창립기념식에서 '명예사업부장보'로 위촉됐다.

명예사업부장보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명인급 FC에게 지역영업을 대표하는 FC로 대우 함으로써 해당 FC에게는 최고의 영예다.

임 FC는 지난 99년부터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도상을 수상해 온 보험 명인이다. 지난 1995년 보험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그는 지금까지 총 보험료만 매월 7억여원이 넘고, 지난 한 해에만 100여건의 신규 보험 계약을 성사시켰다. 지난 1999년에는 보험인의 명예의 전당으로 불리는 MDRT(백만불 원탁회의) 회원이 됐으며 11년 전부터는 MDRT가운데 상위 그룹인 TOP 6회, COT 2회의 실적을 달성했다.

임 FC는 영업 비결에 대해 "오직 부지런함이다"며 "꾸준한 자기계발과 한 발 앞선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여름상품, 더위가 반갑다

에어컨 판매 30% 신장 등 벌써 특수

5월 들어 지역 유통업체마다 '여름시즌' 특수가 한층 빨리 찾아오고 있다. 18일 지역 유통업체와 백화점들에 따르면 대표적 여름상품인 에어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평균 30% 이상 매출이 신장했다.

광주 신세계 이마트 가전매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에어컨 판매율이 높아졌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며 에어컨 판매율이 급속도로 늘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지난해 5월보다 30% 이상 에어컨 판매대수가 늘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본발 방사능 여파와 황사주의보 등이 이어지면서 공기 청정기능과 제습 기능이 더해진 에어컨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판매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름 의류도 지난해에 비해 신장세가 가파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여름상품 매출은 지난달보다 33% 가량 높아졌다. 여름 의류인 반팔 티셔츠와 원피스, 미니스커트 등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9%의 매출 신장세를 기록하며 찾아온 더위를 실감케 하고 있다. 샌들과 선글라스도 다른 품목에 비해 30% 이상 높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반팔티셔츠 35%, 샌들 40%, 선글라스 20% 등 각 여름상품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가 늘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우당탕탕 아이쿠' 어플 인기

앱스토어 교육분야 유료 앱 1위

광주 마로스튜디오가 제작해 EBS와 재능TV에서 인기리에 방영중인 어린이안전교육 애니메이션 '우당탕탕아이쿠'가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으로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4일 출시된 '우당탕탕아이쿠' 어플은 어린이 교육용으로 18일 현재 앱스토어 교육분야 유료 앱 부문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우당탕탕아이쿠' 어플은 안전교육 동영상 9편과 부모와 어린이가 모두 배워야할 안전수칙에 관한 문제풀이 및 전화번호 외우기 놀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